

高峰 詩의 文學的 特性 研究*

— 品格을 中心으로 —

김진욱**

차 례

1. 序論
2. 高峰 詩의 土臺
3. 高峰 詩의 品格
4. 結論

| 국문초록 |

고봉의 시문학은 호남 사림의 詩作 풍토, 16세기에 촉발된 성정 미학 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고봉 자신이 16세기 호남 사림을 대표하는 일원이었으며, 그들의 시작 풍토를 만들어가는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고봉이었기에 호남 사림의 시작 풍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또한 16세기에 일었던 성정론은 문학 창작에도 영향을 끼쳤다. 문학에 있어서 이러한 성정 미학론은 고봉 문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주기론이든 주리론이든 세상의 중심에 성정이 있고, 성정의 발화가 그 사람이라는 성정론은 16세기 한국사상사에 하나의 돌풍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성정론의 중심에 고봉이 있었다. 고봉에게 있어 문학 작품 역시 성정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동일한 논리로 그의 작품은 그 자신의 외화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고봉 문학의 내적 토대이다.

고봉 시에 나타난 품격은 ‘綺麗’, ‘典雅’, ‘自然’이다. 16세기 호남 사림의 시문학 풍토에 영향을 받은 고봉이 가장 추구하였던 품격은 ‘綺麗’이다. 원기 시에 대한 평에서 알 수 있듯 고봉은 ‘綺麗’의 품격을 ‘시 다음’으로 인식하였다. 고봉은 작품 속에 기발하면서도 곱고 아름다운 표현을 쓰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고봉 시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선 표현의 아름다움을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봉은 또한 퇴계의 문학론에 영향을 받아 전아한 시를 쓰려고 노력하였다. 흥을 최대한 절제하고 담담한 필치로 눈앞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려 하였다. 이러한 전아한 품격의 작품은 고봉 시문학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고봉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품격은 ‘自然’이다. 흥의 발산과 절제, 주지와 주정의 조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시정의 전개 등 고봉 시 전반에서 폭 넓게 드러나는 품격은 ‘自然’이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18일에 열린 “한국시가문화학회 2023년 동계 학술대회-호남 시가문학의 전통과 확산”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다. 또한 ‘自然’의 품격이 드러난 작품의 시적 아름다움이 탁월하다. 고봉 시의 품격에 대한 이해는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이유로 고봉 시의 품격 기러, 전아, 자연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논의하였다.

핵심어 : 고봉, 성정론, 품격, 기러, 전아, 자연

1. 序論

高峰은 1527년에 태어나 1572년 46세의 나이로 졸하였다. 중종 22년에 태어나 인조와 명종을 거쳐 선조 5년까지 살았다. 45년을 살았던 고봉은 짧은 생애 동안 766수의 한시 작품을 남겼다. 동시대를 살았던, 천재적 시인인 송강이 573수의 작품을 남겼고, 비슷한 시간을 살았으며, 삼당시인으로 이름을 남겼던 고죽이 238수의 작품을 남긴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양이다.¹⁾ 그러나 고봉은 시인으로서의 위상이 높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고봉이 살았던 시기가 목릉성세(穆陵盛世)로 표현됐던 16세기 호남 사림 문학의 절정기였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봉 시 연구는 일찍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보기엔 미흡하다.²⁾

고봉의 시문학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 빼어남이 돋보이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봉이 학문과 사상적 측면에 남긴 커다란 업적에 그의 문학적 성과가 가려진 영향도 클 것이다. 고봉의 <偶題>는 당대에 이미 작품성

1) 한시 작가가 남긴 작품 수를 정확히 규정하는 일은 어렵다. 송강은 760여 수의 한시를 남겼으나, 『松江集(성주본)』에 수록된 작품은 573수이다. 『孤竹集』에 수록된 한시 작품 수는 총 238수로 오언절구 28제 33수, 칠언절구 84제 102수, 오언율시 36제 41수, 칠언율시 25제 28수, 삼·오·칠언 1제 1수, 오언고시 18제 28수, 칠언고시 5제 5수이다. 『高峰集』에는 766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2)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보면 이병기는 作詩 기교와 道學者로서의 작시법을 고찰하였으며, (이병기, 「송대승의 弔挽詩에 대하여」, 『전통과 현실』 7, 고봉학술원, 1996, 123-155쪽) 김성기는 고봉 증시가 지닌 아름다운 정서와 미의식을 살폈으며, (김성기, 「고봉의 贈詩 연구」, 『전통과 현실』 10, 고봉학술원, 1999, 175-205), 허경진은 퇴계와 고봉이 주고받은 대화시를 비교 연구(허경진 1999; 207-236)하였다. 2004년에는 고봉 시가 담고 있는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고봉의 시 정신을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조정림, 「고봉 기대승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이 나왔다. 그러나 조정림 이후 박사논문은 나오지 않았으며, 21세기 들어 고봉 연구는 간헐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검증되었다. 홍만중은 “말을 지음에 天然스럽고, 각기 妙處를 다하여 그 性情의 바름을 詩에서 얻는다. 이에서 가히 볼 수 있다.”³⁾라고 고봉의 시를 극찬하였다. 또한 <漫興>과 <途中謾成 八首> 등의 작품은 한시의 입문자라도 그 빼어남을 쉬이 알 수 있다.

고봉집의 서문을 썼던 張維는 “선생은 문장에 대해서 다듬고 꾸미기를 일삼지 않았는데도 문장의 기운이 넘치고 생동감 있으며 글 솜씨가 노련하여 크게 일가(一家)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당시 훌륭한 문장가들도 옷깃을 여미고 선생을 추존하며 모두 스스로 바랄 수 없다고 여겼다.”⁴⁾라고 적었으며, 張顯光은 “아름다운 문장은 장구(章句)를 전공하는 자들도 흉내 내어 만들 수가 있으나, 정미한 의리로 말하면 식견이 투철하고 조예(造詣)가 깊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으니, 사람의 천성에서 우리나라와 공공적(公共的)으로 취하고 버림을 속일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고봉(高峯)의 문장만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⁵⁾라고 하였다.

고봉은 다양한 기법으로 양상이 서로 다른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래서 고봉집에는 시적 정서가 상이한 작품들이 혼재되어 수록되어 있다. 문집이 갖는 특성상, 문집 속의 모든 작품은 특정 개인의 창작물임이 분명함에도, 독자는 그 상이성에 놀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이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이를 위하여 고봉의 시적 토대를 살펴보고, 나아가 고봉시의 품격을 논해보고자 한다.

2. 高峰 詩의 土臺

문학 작품이 작가의 ‘내적 인식의 외적 형상화’라는 정의는 문학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생트뢰브의 ‘그 나무의 그 열매’라는 정의는 고전문학 연구가 작가론에 치중되었던 과거 학계의 연구 경향을 잘 설명한다. 작가로부터 자유로운 작품은 없다. 특히 시문학은 이러한 연관성이 더욱 강하다. 고봉 시문학

3) 洪萬宗, 『詩評補遺』 下. 作語天然 各盡妙處 其性情之正得於詩者, 於此可見矣.

4) 奇大升, 『高峰集』, <高峰集序>.(張維)

5) 奇大升, 『高峰集』, <高峰集序>.(張顯光)

에 대한 정치한 이해는 고봉이라는 작가 연구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고봉 연구는 앞서 언급했듯이 종합적 연구라 할 수 있는 박사논문이 나왔다. 또한, 많은 선학들의 노고 덕분에 고봉이라는 작가는 충분히 연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 결과물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고봉의 시문학에 크게 영향을 끼친 요소는 호남 사림의 詩作 풍토, 16세기에 촉발된 성정 미학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씨줄과 날줄이 되어 고봉 시문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먼저, 16세기 호남 사림의 시작 풍토를 점검하고자 한다. 한국 시가 문학사에서 16세기 호남 시가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목릉성세라 일컬어지는 16세기 호남 사림의 시문학을 주도했던 인물은 송강, 고죽, 옥봉을 꼽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시발점은 석천과 면양정에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문학만으론 호남 시문학을 정의하기 어렵다. 하서와 고봉, 제봉과 서하당, 양산보 등의 문학적 특성이 가미되었을 때 호남 사림의 시문학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고봉은 위에서 언급한 인물들과 동시대를 동일한 공간에서 서로 교유하며 살았다. 그들의 시문학은 오늘날까지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으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한 시대를 풍미할 만한 천재적 작가들이 동시에 활동하며 동일한 공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유례는 한국 시가 문학사 전체를 들여다 봐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의 활동을 오늘날 ‘면양정 가단’이나 ‘성산 시단’ 등으로 명명하여 종합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⁶⁾ 그들의 시에 대한 고민은 당시 시문학의 주류적 흐름이었던 송시를 벗어나 唐詩에 대한 고민을 詩作에 투영하게 하였다. 그 결과는 조선조 시문학에 새로운 경향을 불러왔으며, 조선조 시문학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또한, 그들의 시에 대한 논의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고봉 역시 그 일원 중 하나였다.

이러한 16세기 호남 사림의 문학적 풍토는 새로운 문학론이라 할 수 있는 성정 미학 논의가 일어났을 때, 고봉이 이를 수용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고봉의 시에 대한 인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즉, 16세기 호남 사림

6)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한국시가학회와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원 이 주도하였다. 또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연구 성과를 이뤄냈다.

문학의 시풍은 고봉 시문학의 내적 토대가 되어 그의 시작 활동의 제 방면에 작용한 것이다. 고봉 시문학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16세기 호남 사림의 문학적 풍토를 이해해야 한다. 고봉 시문학은 16세기 호남 사림의 문학적 풍토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한국 시문학의 독특한 시론이었던 성정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시란 무엇인가? 시는 어디에서 오는가? 시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등의 논의는 그 전통이 오래되었다. 하지만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위의 논쟁이 16세기에 들어 본격화된다. 이러한 논쟁을 이끌었던 이가 퇴계와 율곡이다. 물론 성정론의 출발은 문학이 아니다. 이들은 사람의 모든 행위가 성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문학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다.

16세기 조선에서 한문학을 창작했던 儒者는 확고한 미학 사상을 지니고 작품활동을 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좁히다면 성정 미학이며, 실제 창작 활동에서는 품격론이다. 품격론을 하나의 ‘論’으로 정립한 이는 율곡이다.⁷⁾ 율곡 이전에는 단편적이고 고립적으로 언급되다가 16세기에 와서 율곡이 하나의 논리체계를 형성시켰고, 아울러 여덟 개의 품격을 정립하여 조선 전기 사단의 詩風을 쇄신코자 했다.⁸⁾ 성정 미학은 주제 의식과 형상 의식에 골고루 작용했는데, 특히 어떻게 주제를 형상화할 것인가에 주의를 집중했다. 이때 성정의 올바른 품을 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품격론의 무게는 형상 의식에 주어졌다. 이러한 형상 의식은 性情之正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吟詠性情이어야 한다. 음영성정은 淸和를 펼쳐내어 가슴 속에 쌓인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내어 고매한 인격을 향유케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淡泊을 맛보며希 希를 즐길 수 있어야 하며, 心氣를 평화롭게 하여 수레를 타고 꽃길을 가는 듯하여

7) 한국에서 체계적인 품격론의 출발은 이이의 정언모선이다.

8) 세대가 내려올수록 風氣는 점점 혼탁해졌고, 혼탁한 풍기가 발하여 시가 되었기 때문에 性情之正에 근본을 두지 못하고 글귀의 조탁에 의지하여 속된 독자의 기호에 영합함을 일삼고 있다. ... 시의 원류가 오랫동안 막혀서 지엽말단의 여러 갈래로 흘러 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현혹되어 정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감히 가장 정수라고 인정되고 모범이 될 만한 것을 채택하여 八篇으로 엮고 圈點을 찍어서 이름하여 精言妙選이라 했다. 冲淡의 품격을 머리로 삼아서 시의 본원을 인식하게 하고, 점차로 내려가서 美麗한 작품에서는 시의 맥락이 거의 진면목을 잃어버린 실상을 보이려고 했다. 이에 明道의 韻語로써 마쳤다. 이는 시가 矯僞한 경지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을 두고 작품을 취사선택한 결과이다(李珣, 《栗谷全書》 권 13, 精言妙選序).

세속의 모든 利慾을 초탈케 하고, 인간 내면의 臭腐를 세척하여 심성을 청결하게 하고, 의사를 천박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원망이나 음란하고 방탕한 심정을 야기해서 안되며, 나태한 사람을 立志케 하며 비속한 자는 우아한 취향을 지니게 하며, 수척하고 메마른 사람들에게는 정서를 살찌게 하고 꽃피게 하는 기능과 효용이 있어야 한다.⁹⁾

표면적으로 이들 품격론에는 성리학적 논리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공도를 위시한 중국 측 품격론과는 달리 성리학적 성정론, 즉 성정 미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성정 미학을 깔고 있으면서도 이를 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율곡의 탁월한 면이다. 퇴계의 시론 역시 성정 미학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그 결이 다르다.¹⁰⁾

고봉과 퇴계의 관계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고봉과 퇴계는 사상, 학문, 문학 등 제 방면에서 긴밀히 교류하였다. 그러한 퇴계의 시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陶山十二曲 跋>이다.

이 <도산십이곡>은 도산 노인이 지은 것이다. 노인이 이 시조를 지은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 동방의 가곡은 대체로 음와(淫蛙)하여 족히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저 <한림별곡>과 같은 류는 문인의 구기(口氣)에서 나왔지만 공호(矜豪)와 방탕에다 설만(褻慢)과 희압(戲狎)을 겸하여 더욱이 군자로서 숭상할 바 못 되고, 다만 근세에 이별(李鵬)이 지은 <육가(六歌)>란 것이 있어서 세상에 많이들 전한다. 오히려 저것이 이것보다 나을 듯하나, 역시 그 중에는 완세불공(玩世不恭)의 뜻이 있고 온유둔후(溫柔敦厚)의 실(實)이 적은 것이 애석한 일이다.¹¹⁾

9) 李珣, 《栗谷全書》拾遺, 권 4, 精言妙選總叙.

10) 주제의식과 형상의식을 미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함께 검토해야 하는 당위성은, 수레의 바퀴가 적어도 두 개인 사실에 비견된다. 한국 한문학도 지금부터는 품격론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품격론은 성정미학의 하위 영역이다. 이황은 ‘冲澹蕭散’의 품격 용어를, 이는 ‘온유둔후’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은 흥미를 끈다. 이 점은 이황·이이 양현의 문학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이가 온유둔후를 몰랐을 리 없고 이황이 충담소산을 몰랐을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이들 용어를 가급적 기피한 이유는 소아적 발상이 아니라, 문학의 정당한 세포분열로서의 심화 확충의 의지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림파문학의 맥락과 용기는 이황·이이에 의해 양대 산맥으로 양분되어 더욱 활발하게 펼쳐졌다.(한국사 집필 위원회, 한국사, 조선전기 한문학)

11) 李滉, 退溪集, <陶山十二曲 跋>. 右陶山十二曲者, 陶山老人之所作也. 老人之作此, 何爲也哉. 吾東方歌曲, 大抵多淫哇不足言.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戲狎, 尤非君子所宜向. 惟近世有李鵬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乎其有玩世不恭之意, 而

율곡과 퇴계의 시론은 이후 기호학과와 영남학과 문인들의 시 창작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시론 논쟁으로부터 고봉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이것이 고봉 시 품격에 율곡의 ‘自然’¹²⁾과 퇴계의 ‘典雅’¹³⁾가 작동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성정론은 權鞮와 許筠, 姜籬 등의 시인들이 나타나면서 또 한 번 변화한다. 하지만 고봉 사후의 일이고 고봉은 성정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고봉의 시문학은 호남 사림의 詩作 풍토, 16세기에 촉발된 성정 미학 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고봉 자신이 16세기 호남 사림을 대표하는 일원이었으며, 그들의 시작 풍토를 만들어가는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고봉이 호남 사림의 시작 풍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의 문제이다.

또한 16세기에 일었던 성정론은 문학 창작에도 영향을 끼쳤다. 문학에 있어서 이러한 성정 미학론은 고봉 문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주기론이든 주리론이든 세상의 중심에 성정이 있고, 성정의 발화가 그 사람이라는 성정론은 16세기 한국사상사에 하나의 돌풍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성정론의 중심에 고봉이 있었다. 고봉에게 있어 문학 작품 역시 성정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동일한 논리로 그의 작품은 그 자신의 외화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고봉 문학의 내적 토대이다.

3. 高峰 詩의 品格

시의 품격을 논하는 작업은 어려운 일이다. 작업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시의 의경이 단일한 정서로 흐르는

少溫柔敦厚之實也.

- 12) 율곡은 시에 대하여 “사람의 소리 중에서 가장 정묘한 것은 말이다. 시는 말 중에서도 또 정묘한 것이다. 시는 성정에 근본한 것이어서, 거짓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리의 높고 낮음은 자연스러움에서 나온다.”人聲之精者爲言 詩之於言 又其精者也 詩本性情 非矯僞而成 聲音高下 出於自然.(李珣, 栗谷先生全書 卷之 13.)
- 13) 선생은 시 짓기를 즐겨하여 평생을 두고 공력을 경주했다. 선생의 시는 勁健하고 典實하여 화려하고 현란한 꾸밈이 없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無味하게 보이지만, 읽을수록 더욱 좋아하게 된다. 일찍이 선생께서 ‘나의 시는 枯淡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자가 많다. 그렇긴 하나 애쓰고 심사숙고하여 창작한 까닭으로 처음에는 냉담하게 여겨지지만 오래 볼수록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시는 학자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아니지만, 경관을 만나서 흥이 일어나면 시가 필요하다.’고 했다.(李滉, 退溪全書 <言行錄>, 권 5, 類編.)

것도 아니고, 평자의 주관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상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추는 현재의 연구 경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연구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품격을 논하는 것은 특정 작가의 시세계를 이해하는 유효한 방법론이다.

사공도¹⁴⁾는 당나라 말기의 대표적 시인 중 하나이다. 그의 시는 당나라 말기에 으뜸으로 꼽혔으며, 특히 시에 대해 논평을 잘하는 것으로 높게 평가받았다. 사공도는 시의 이론에 조예가 깊었으며, 특히 시의 의경을 논하는 데 있어 독보적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품격론이 사공도로부터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대표적 詩 작품인 <二十四詩品>은 시의 품격을 大別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그의 대표적 詩 작품인 <二十四詩品>은 시의 意境을 24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각 품은 4언의 韻語에 12구를 형성하여 모두가 288구로 장문의 作詩를 하였는데, 각각의 작품이 시의 意境에 기초한 품격을 비유와 해설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공도의 <二十四詩品> 중 <9 綺麗>, <6 典雅>, <10 自然>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고봉 시의 품격을 논하고자 한다. 조선조 유자는 시를 창작할 때 주제 의식과 형상화 방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였다. 이 세 가지 품격의 공통점이라면 형상화 방식에 조금 더 무게를 둔 품격론이라는 점이다.

16세기 호남 사림이 추구하였던 형상화 방식이 綺麗에 치우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봉 역시 작품을 창작할 때 기려를 추구하였다. 그러므로 고봉의 시 작품에 어떻게 기려가 外化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고봉 문학의 이해에 필요한 일이다. 사공도의 <二十四詩品> 중 <9 綺麗>는 시의 의경이 ‘작품의 표현력이 기발하고 다양함이 있어 곱고 아름다움’으로 요약할 수 있다.

14) 司空圖(837~908), 자는 表聖이며 山西省의 河中廣鄉 출생으로 咸通 연간인 869년 진사에 급제하여 예부시랑 즉, 副大臣이 되었고 왕웅(王凝)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재상 노후(盧摺)에게 높은 절개가 알려져, 여러 관직을 거쳐 禮部郎中 즉, 예부 諸司의 長이 되었다. 黃巢의 무리가 장안을 침범하여 희종이 蜀나라로 피란하였을 때, 이를 따르려다 河中으로 돌아갔다. 후에 희종이 還幸 도중 봉상(鳳翔)에서 불러들여 知制誥 즉天子의 內命詔告를 맡아보는 벼슬에 명하였다. 후일 산서성 中條山의 王官谷에 은퇴하여 스스로 내육거사(耐辱居士)라 일컬으며 유영속문(遊詠屬文)을 일삼았다. 朱全忠이 唐나라 조정을 찬탈한 후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고, 908년 哀帝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진하였다. 『司空表聖文集』 10권과 시집 5권이 전해지고 있다.

神存富貴	정신에 부귀함을 지녀야,
始輕黃金	비로소 황금을 가벼이 여길 수 있도다.
濃盡必枯	질은 것 다하면 반드시 메마르나,
澹者屢深	담담한 것은 자꾸 깊어만 진다네.
霧餘水畔	물가에 자욱히 안개 끼어 있는데,
紅杏在林	붉은 살구나무는 수풀 속에 있도다.
月明華屋	화려한 저택에 달은 밝디 밝고,
畫橋碧陰	그림 그려진 다리에 푸른 그늘이 진다네.
金樽酒滿	아름다운 술잔에 술이 가득한데,
其客彈琴	객이 주인을 위해 거문고를 탄다네.
取之自足	이를 듣고 난 객은 만족하나니,
良婢美襟	진실로 마음속이 아름다워진다네.

<9 綺麗>¹⁵⁾

사공도는 <綺麗>를 詩作하면서 ‘霧餘水畔 紅杏在林 月明華屋 畫橋碧陰’라는 시구로 綺麗에 대한 설명 자체에서 표현의 아름다움을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곱고 아름다운 표현은 율곡이 정언묘선에서 말한 ‘미려’의 품격이고, 호남 사림이 추구하였던 ‘시 다움’이었다. 고봉은 이러한 표현 방식이 시의 외적 형상화 방식의 이상적 경지로 이해하였던 것 같다. 고봉은 특별한 시론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그의 작품을 보면 이러한 내적 인식을 읽을 수 있다. 고봉은 이처럼 사공도의 <綺麗>를 추구하였다.

夜室且歸臥	밤에 돌아와서 방에 누워
閑繙東海詩	한가로이 동해시를 펼쳐 보았네
片言猶出口	조각 말도 그 입에서 나왔으니
廿首轉探奇	이십 수에 점점 빼어남을 알겠도다
欲和吾嫌拙	화답하고 싶지만 나는 재주가 없고
相須子苦遲	기다리자면 그대는 늦다고 하리
挑燈空吮墨	등불을 돌우며 공연히 붓만 깨무니
兀坐不眠時	우뚱하게 앉아 잠을 이루지 못하였네

<癸亥 圓機再用詩字韻寄示 20번째 首>¹⁶⁾

15) 司空圖, <二十四詩品> 중 9번째 작품 <綺麗>.

16) 奇大升, 『高峰集』, 卷之一.

이 작품은 오언율시 24수로 구성된 장편으로, 시제는 <癸亥 圓機再用詩字韻 寄示 同龍門和呈 遂與往復 午後海美倅梁叔躔適來 通判爲上撫夷 設筵射候 余亦參 圓機被醒未出 獨佳什屢至 龍門暨余酬答不暇 復困杯勺 未能繼次者 蓋四五篇焉 醉墨淋漓 終相爲戲 頗有做不成者 聊以博笑云>이다. 작품 전체를 개략하면 원기 시에 대한 찬탄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詩才에 대한 한탄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하여 金晉郁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고봉은 원기의 시 창작 방식을 시작의 이상적 경지로 보았다. 시를 쓰고 싶을 때, 그 흥을 기묘한 시어로 즉석에서 짓는 것이 시 창작의 이상적 방식이라 생각한 것이다. -中略- 원기는 흥이 일면 즉석에서 시를 창작하였고, 특히 시어의 기묘함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고봉이 추구한 또 하나의 시관(詩觀)이었을 것이다. -中略- 고봉이 시에서 추구했던 것이 ‘즉흥(卽興)’, ‘빠어난 시어’, ‘탁월한 묘사’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¹⁷⁾

고봉의 <千葉桃調金仲顯>라는 작품은 시어의 기발함과 표현의 곱고 아름다운 점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이러한 綺麗의 품격이 잘 드러난 <千葉桃調金仲顯>이라는 작품을 감상해보자.

一樹芳桃立淺溪	한 그루 복숭아나무 시냇가에 섰으니
蔦紅能使客魂迷	연분홍빛 사람을 홀리게 하는구나
濃含曉霧濛濛濕	새벽안개 머금어 축축이 젖어 있고
嫩受和風細細低	봄바람 맞으며 가늘게 늘어졌네
會見有蕘天與實	마침내 탐스런 열매 보여 줄 것이고
不期無語自成蹊	기약과 말 없어도 절로 길이 생기리라
百年幽契拚身世	백 년의 그윽한 벗 세상도 잊었는데
肯信花衰始獨悽	꽃잎 쇠해 슬퍼함을 어찌 믿으리

<千葉桃調金仲顯>¹⁸⁾

고봉의 <千葉桃調金仲顯>이라는 작품을 보면 시어의 기묘함이 남다르다. 특히 전 4구는 앞서 논의하였던 사공도의 <綺麗> 5구, 6구와 심상이나 표현 모두

17) 김진옥, 「고봉시의 봄 의미 연구」, 『문화와 융합』 45(1),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18) 奇大升, 『高峰集』, 卷之一.

가 유사하다. ‘물가에 자욱히 안개 끼어 있는데, 붉은 살구나무는 수풀 속에 있도다.’와 ‘한 그루 복숭아나무 시냇가에 섰으니 연분홍빛 사람을 홀리게 하는구나. 새벽안개 머금어 촉촉이 젖어 있고 봄바람 맞으며 가늘게 늘어졌네.’는 둘 다 안개 낀 물가의 살구나무와 복숭아나무를 시화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곱고 아름답다. 그래서 이 작품은 사공도의 <綺麗> 5구, 6구를 풀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시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고봉이기에 사공도의 <二十四詩品>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자신이 추구하였던 <綺麗>를 작품 속에 담아낸 것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고봉의 <吟贈居士>는 독특하면서도 참신한 형식의 작품이다. <吟贈居士>는 1제 2수의 작품인데, 첫수는 칠언절구이고, 두 번째 수는 오언율시이다. 여기에서는 두 번째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川吼翻寒雪	넋물은 눈보라가 날리는 듯 울어대고
林深擁翠屏	숲은 비취색 병풍을 두른 듯 깊구나
倒衣看急水	정신 없이 여울을 구경하고
高枕望回汀	머리 들어 굽이치는 물줄기를 바라본다
丘壑琴三疊	산 속은 거문고 석 장이요
乾坤酒一瓶	세상은 막걸리 한 병이라
寂寥詩興發	적막 속에 시흥이 일어나니
未覺夕陽冥	석양이 지는 것도 깨닫지 못하누나

<吟贈居士>¹⁹⁾

고봉의 <吟贈居士>는 前景後情의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前景後情의 작품은 전 4구는 경을 후 4구는 정을 노래하는데, 경과 정의 조화가 중요하다. <吟贈居士>는 경과 정의 조화가 뛰어나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표현의 기발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기록이 없어 알 수는 없지만 산 속 깊은 곳에 사는 거사를 만나러 갔다가 넋물이 우렁차게 흐르는 특정 지점에서 시흥이 일어 창작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 작품은 특별한 시적 주제가 없다. 이 작품을 읽는 독자는 표현의 기발함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먼저 수련을 보면 ‘川吼翻寒雪’이라며, 우렁차게 흐르는 넋물의 소리를 눈보

19) 奇大升, 『高峰集』, 卷之一.

라가 몰아치는 것에 비유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표현 자체의 멋스러움이 놀랍고, 이러한 표현 방식은 현대 시인들이 종종 사용하는 공감각적 표현이라는 사실도 놀라움을 준다. 댓구인 ‘林深擁翠屏’ 역시 울창한 숲을 비취색 병풍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울창한 숲을 틈이 있을 수 없는 병풍으로 표현하고 있다. 경련에서는 거사가 사는 산 속을 丘壑으로, 자신이 속한 세상을 乾坤으로 대를 맞추고 있다. 나아가 세상 밖에선 자연의 소리가, 세상에선 술이 詩興을 불러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다.

고봉은 이처럼 즉석에서 발흥되는 시흥을 형상화하여 시를 창작하였다. 기발한 표현과 곱고 아름다운 시어로 ‘시 다음’을 추구하였다. 이것이 고봉의 시 세계에서 ‘綺麗’의 정취가 흠뻑 느껴지는 이유이다. 이어서 사공도의 <二十四詩品> 중 6번째 시품인 <典雅>를 살펴보자.

玉壺買春	옥으로 만든 병 속에 봄을 사 담고,
賞雨茅屋	초가집에서 내리는 비를 구경하네.
座中佳士	자리엔 좋은 선비들로 가득하고,
左右脩竹	좌우엔 기다란 대나무숲이라네.
白雲初晴	갓 비 개고 흰 구름 두둥실 피어나는데,
幽鳥相逐	그윽히 지저귀는 산새들 날아다니네.
眠琴綠陰	숲 그늘 속에서 거문고 베고 자는데,
上有飛瀑	위로 나는 듯 떨어지는 폭포수로다.
花落無言	떨어지는 꽃잎은 말이 없는데,
人澹如菊	사람의 마음 담담하기 국화꽃 같도다.
書之歲華	이것을 한 해의 풍광으로 글을 지으면,
其日可讀	사람들은 입을 만하다고 할 것이로다.

<6 典雅>

사공도의 <二十四詩品> 중 6번째 시품인 <典雅>는 ‘법도에 맞아 단아한 시정’을 말한다. 여기서 법도는 자연의 순리²⁰⁾이고, 단아함은 담담함이다. 그러므로 <典雅>는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²¹⁾ 그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그때 일어난

20) 일반적으로 한문에서 典은 經書를 이야기한다. 경서의 기본 방향이 자연에의 순리이고, 여기는 시품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이해하기 쉽게 의역했다.

21) 여기서 자연은 논어 용야편에 나오는 山水를 의미한다.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

시흥을 담담한 필치로 그려낸 의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典雅’의 품격이 가장 돋보이는 작가는 퇴계이다. 퇴계의 문인이었던 정유일은 스승의 시 세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생은 시 짓기를 즐겨하여 평생을 두고 공력을 경주했다. 선생의 시는 勁健하고 典實하여 화려하고 현란한 꾸밈이 없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無味하게 보이지만, 입을수록 더욱 좋아하게 된다. 일찍이 선생께서 ‘나의 시는 枯淡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자가 많다. 그렇긴 하나 애쓰고 심사숙고하여 창작한 까닭으로 처음에는 냉담하게 여겨지지만 오래 볼수록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시는 학자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아니지만, 경관을 만나서 흥이 일어나면 시가 필요하다.’고 했다.²²⁾

여기서 언급되는 ‘勁健’, ‘典實’, ‘枯淡’은 모두 품격 용어이다. 이 셋은 화려하고 꾸밈이 없어 무미하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공도의 <二十四詩品> 중 6번째 시품인 <典雅>와 닿아있는 품격이다. 퇴계의 영향을 받았던 고봉 역시 그의 작품에 琬世不恭의 뜻과 溫柔敦厚의 實을 실으려 했다. 이러한 詩作 활동의 결과물이 <典雅>와 <自然>으로 양분되어 나타났다. 고봉의 자연관이 詩作 활동을 할 때, 주지적 측면이 강조될 때에는 典雅가, 주정적 측면이 강조될 때에는 自然으로 나타났다. 시의 주제에 경도될 때에는 典雅가, 시의 형상화에 주목할 때에는 自然의 품격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典雅를 논하고자 한다. 작품을 통하여 고봉 시에 드러난 典雅의 품격을 살펴보자.

庭前小草挾風薰	뜰 앞에 작은 풀 훈풍을 만났으니
殘夢初醒午酒醺	쇠잔한 꿈 깨자 낮술에 취하였네
深院落花春晝永	깊은 정원에 꽃 지고 봄날은 긴데
隔簾蜂蝶晚紛紛	말 밖에 벌과 나비 늦도록 분분하네

<偶題>²³⁾

이 작품에 대하여 홍만중은 “아! 이들 여러 현인들의 시는 말을 지음에 天然

靜知者樂仁者壽(『論語』, 6편 雍也).

22) 李滉, 『退溪全書』, <言行錄>, 권5, 類編.

23) 奇大升, 『高峰集』, 卷之一.

스럽고, 각기 妙處를 다하여 그 性情의 바름을 詩에서 얻은 것임을 이에서 가히 볼 수 있다.”²⁴⁾라고 평했으며, 김병국은 “깊은 산 속의 집에서 고봉은 한가로이 봄날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中略 고봉은 시를 吟咏하면서 性情의 바름[正]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봉의 시관(또는 문학관)이 성리학적 효용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고봉도 文을 載道之器로 인식했었던 것이다.”²⁵⁾라고 하였다. 金晉郁은 “이 작품은 한가로운 봄날의 정취를 꾸밈없이 직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아름다움을 획득하고 있다. 은유나 상징, 그리고 압축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자연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자연을 관조의 대상으로 승격시키고 있다. 아무런 꾸밈이 없다는 것이 작품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²⁶⁾라고 평하였다.

이 작품은 어느 봄날 낮술에 취해 깜박 졸다 눈을 뜨자, 발 밖으로 어지러이 날고 있는 벌과 나비가 한 폭의 산수화처럼 다가온 시정을 읊은 것이다. 이 이상의 해석은 오히려 작품 읽기를 방해한다. 앞서 언급한 “〈典雅〉는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 그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그때 일어난 시흥을 담담한 필치로 그려낸 의경이라 할 수 있다.”에 정확히 부합하는 작품이다. 고봉은 이러한 의경을 시화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愁外水流花謝
意中雲白山靑
蹇驢破帽西去
無限長亭短亭

근심이 없으니 흐르는 물, 지는 꽃이 보이고
마음속엔 흰 구름 푸른 산 가득하네
발 저는 나귀 해진 모자 서쪽으로 가니
장정에 단정에 그 길은 끝이 없네

堤下荷花亂發
堤上榆柳交陰
一雙白鷺竝坐
爲問渠有何心

제방 밑에 연꽃 흐드러지게 피었고
제방 위엔 느릅나무 버드나무 무성 하구나
한 쌍의 백로가 나란히 앉았으니
문노라 너는 무슨 마음 지냈고
〈途中謾成 八首〉²⁷⁾

24) 洪萬宗, 詩評補遺 下. 噫此等諸賢之詩, 作語天然 各盡妙處 其性情之正得於詩者, 於此可見矣.

25) 김병국, 「고봉 기대승의 문학 연구」, 『泮橋語文研究』 30, 반교어문학회, 2011, 69쪽.

26) 김진옥, 앞의 논문.

27) 奇大升, 『高峰集』, 卷之一.

위의 작품은 <途中謾成 八首> 중 첫 번째와 네 번째 작품이다. 고봉의 <途中謾成 八首>는 육언고시이다. 육언고시라는 형식의 독특함에 더해 韻字를 정확히 맞추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고봉의 <途中謾成 八首> 역시 위의 <偶題>와 그 심상이 유사하다. 시제가 途中謾成이니 길을 가다 한가로이 읊은 것이다. ‘愁外水流花謝’라 했으니 특별한 목적을 가진 途中은 아닐 것이다. 또한 ‘無限長亭短亭’이라 했으니 먼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途中謾成 八首>는 한가로운 여정에서 맞는 여러 풍경을 담담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고봉은 세상을 愁로 보았다. 이 근심 밖으로 벗어나니 자연이 보이는 것이다. 물이 흐르는 것이 보이고, 꽃이 지는 것이 보인다. 물은 흐르는 것이 꽃은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이미 먼 길을 왔으니 나귀는 밤이 저리고, 행색은 남루하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욱 막막하다. 단정에 장정에 한없이 가야 한다. 고봉의 눈 앞에 펼쳐진 풍광과 본인의 의중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두 번째 작품 역시 심상이 동일하다. 제방 아래 흐드러지게 핀 연꽃, 제방 위의 버드나무, 한 쌍의 백로 모두 고봉의 눈 앞에 펼쳐진 풍광이다. 적어도 이 작품 속에서 연꽃은 어떠한 상징도 아닌, 그냥 연꽃이다. 연꽃, 버드나무, 백로 모두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이다. 하지만 그 속성을 고려하여 이 작품을 읽으면 읽기가 안된다. ‘爲問渠有何心’ 역시 철학적 질문이 아니다. 한가로워 보이는 백조는 무슨 마음으로 살까 궁금해진 것이다.

고봉의 <途中謾成 八首>는 먼 길을 가는 도중에 그의 눈 앞에 펼쳐진 풍광을 담담한 필치로 그려낸 작품이다. 특별한 주제의식도 보이지 않고, 표현에 있어선 修飾도 없고, 기발함도 없지만 거듭하여 읽을수록 작품의 첫 번째 시어인 ‘愁外’로 나아가게 한다. 독자는 작가의 시선을 따라 함께 자연 속을 거닐며 부질없는 근심을 내려놓는다. ‘典雅’의 품격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와 유사한 심상의 작품을 『高峰集』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다. 끝으로 사공도의 <二十四詩品> 중 10번째 시품인 <自然>을 논하고자 한다.

俯拾卽是	내려보고 주우면 곧 그것이라도,
不取諸隣	이웃에서 그것을 취하지 않느니라.
俱道適往	길을 갖추어 알맞게 가고,
著手成春	손을 대면 따뜻한 봄이로다.

如逢花開	만나보면 꽃이 피고,
如瞻新歲	바라보면 해가 새로워진다네.
眞子不奪	진정으로 준 것은 빼앗지 않고,
強得易貧	억지로 얻은 것은 쉽게 가난해진다네.
幽人空山	인적 없는 빈 산에 숨어 사는 사람,
過水菜蘋	물가를 지나면서 마음을 따노라.
薄言情晤	말은 적어도 마음은 밝아,
悠悠天鈞	자연의 법칙은 그윽하기만 하도다.

〈10 自然〉

사공도의 〈二十四詩品〉 중 10번째 시품인 〈自然〉은 모든 것이 조화로워 詩가 억지가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동어 반복이지만 부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自然’이다. 시의 의경이 억지가 없는 조화로운 상황이 自然이다. 시의 주제의식과 형상화 방식 둘 다에 균형을 잃지 않고, 興을 애써 감추려 하지도 않는 의경이다. ‘薄言情晤 悠悠天鈞’에서 보이듯, 율곡의 ‘冲澹蕭散’의 품격과 맥이 닿아있다. 고봉 시에는 自然의 품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봉 시의 품격을 대표한다.

‘自然’의 품격이 추구하는 가장 조화로운 대상이 자연이기에, 일반적으로 자연을 노래한 작품에 ‘自然’의 품격이 잘 나타난다. 고봉의 시 세계에 대해 권미화는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고봉에게 있어서 자연은 본래의 덕성을 함양하려는 養性的 공간이었고 환로에서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치유하는 자아성찰과 치유의 공간이었으며 말년에 田居하면서 爲己之學의 학문을 탐구하는 은거의 공간이었다. 고봉은 자연을 질서와 조화를 갖춘 至高至善의 이상세계로, 우주만물의 존재의 본원을 찾아가는 지표로 인식하였기에 산수전원을 매개로 진정한 道心을 추구하려 하였다.²⁸⁾

시 세계와 품격은 동일한 의미의 어휘는 아니다. 그러나 그 맥이 닿아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권미화가 평한 “고봉은 자연을 질서와 조화를 갖춘 至高至善의 이상세계로, 우주만물의 존재의 본원을 찾아가는 지표로 인식하였기에 산수

28) 권미화, 「고봉 기대승 한시의 산수전원 의식 연구」, 『열상고전연구』 69, 열상고전연구회, 2019, 147쪽.

전원을 매개로 진정한 道心을 추구하려 하였다.”는 고봉의 의지가 작품에 ‘自然’의 품격을 갖추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고봉시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가 논의한 <漫興>을 살펴보자.

故山春雨後	고향에 봄비가 내리니
花發蕨芽肥	꽃 좋고 고사리도 살지구나
謾欲尋芳去	부질없이 명예를 쫓아 떠났다가
應須詠月歸	달빛만 읊으면서 돌아오네
松醪滿盞嫩	송로는 동이 가득 익어 가고
石菜着根鮮	돌나물은 뿌리 내려 향기롭네
醉臥風生耳	취해 눕자 바람이 귓가에 나니
陶然忘世機	도연히 세상 일을 잊어버리노라

<漫興 3수 중 첫수>²⁹⁾

고봉의 <漫興>은 많은 연구자가 논의한 작품으로 박명희는 “봄비가 내린 뒤의 풍광을 묘사하던 중에 술에 취해 세상의 근심을 잊는 모습을 그렸다.”³⁰⁾고 하였으며, 권미화는 “청정한 고향 산의 풍경은 시인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감흥이 저절로 차오르게 하고 시인은 달빛에 젖어 시로써 그 감흥을 읊고 있다. 그 풍경과 감흥이 참되어 시에는 자연의 旨趣가 그대로 깃들어있다.”³¹⁾고 하였다. 김병국은 <漫興> 두 번째 수에 대하여 “자연의 경물인 풀과 꽃과 나무에 물이 올라 화사함과 싱그러움을 더하니, 마음속에 흥취가 도도히 오르는 것이다.”³²⁾라고 논하였다.

고봉의 <漫興>은 春興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제가 漫興임에도 치우침이 없다. 수련에서 발기한 춘흥을 함련에서 붙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율시에서 수련의 발기는 함련에서 나아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여기서 붙잡은 이유는 지나침을 꺼린 탓일 것이다. 이러한 붙잡음은 경련에서 다시 나아감으로 미련에서 다시 머무름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파격이 자연스럽다.

29) 奇大升, 『高峰集』, 卷之一.

30) 박명희, 「高峰 奇大升 시에 나타난 興感의 미학적 특징」, 『호남문화연구』 54, 호남문화연구소, 2013, 198쪽.

31) 권미화, 앞의 논문, 211쪽.

32) 김병국, 앞의 논문, 69쪽.

그래서 춘흥이 권미화의 표현처럼 저절로 차오르고, 김병국의 표현처럼 도도히 오르는 것이다. 시의 의경이 억지가 없다.

累日寄山齋	여러 날 산재에 있으면서
釋紛聊自輕	번잡을 벗어나 자유롭게 지내네
晝永春氣滿	낮이 기니 봄기운 가득하고
境靜禪意盈	세상이 평화로우니 禪의 뜻 충분하네
暄風將微雨	더운 바람에 가랑비 내릴 것 같고
幽草日日生	고운 풀 날마다 돌아나네
偶此感物化	우연히 이러한 조화를 느껴
緬然含深情	아득히 깊은 정을 머금노라

〈偶成〉³³⁾

고봉의 〈偶成〉은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산재에서 유속하며 즐기는 춘흥을 노래한 작품이다. 앞서 살핀 〈漫興〉과 유사한 심상이나 〈偶成〉에서는 그 흥이 훨씬 절제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작품은 수련에서 세상의 번잡함을 벗어나 산재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자유는 얽매이지 않음에서 오는 마음의 여유이다. 함련에서는 봄이 와 낮이 길어지니 따뜻함이 가득한 날들이 연속된다며 이것이 평화로운 세상이지 않나 이야기한다. 禪의 사전적 정의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 불교 수행 방법’이다. 산재의 평화로움이 선이 실현된 공간이라는 의미는 봄날 즐기는 유유자적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준다.

이 작품의 시안은 경련이다. ‘날이 더워지니 비가 내릴 것 같다.’라는 시상에는 자연의 조화가 내포되어 있다. ‘날이 더워지니 비가 내려 식혀 준다.’라는 단순한 논리가 세상의 법칙인 것이다. 세상을 식히기 위해 내리는 비는 만물을 생장시킬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조화다. 미련에서의 이러한 깨달음이 다시 함련의 禪으로 이어진다. 평화로운 세상에서 만물이 순환과 생장을 하는 조화가 이 작품의 의경이다. ‘自然’의 품격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다음은 유사한 시상의 〈次李重之韻〉이다.

33) 奇大升, 『高峰集』, 卷之一.

池塘春草晚萋萋	연못의 봄풀이 늦게야 우거지니
隱几閑吟日向西	기대앉아 한가로이 석양을 노래하네
風撼殘梅飄白雪	바람은 매화를 흔들어 눈꽃을 날리고
雨霑幽逕淨芳泥	비는 오솔길 향기로운 흙을 적시네
垂楊帶霧村村暗	안개 속의 수양버들 마을마다 자욱하고
好鳥迎時樹樹啼	때 맞춰 새들은 나무마다 우는구나
聞道新亭開勝槩	들었노라 새 정자에 경치도 좋다 하니
擬携藜杖步苔磧	청려장 끌고서 이끼 낀 길 걸으리라

〈次李重之韻〉³⁴⁾

고봉의 〈次李重之韻〉은 ‘自然’의 의경을 잘 드러낸 수작이다. 첫 2구는 謝靈運의 〈登池上樓〉란 시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謝靈運의 〈登池上樓〉³⁵⁾는 ‘自然’의 품격이 돋보이는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³⁶⁾ 정민의 말을 들어보자.

謝靈運은 〈登池上樓〉란 시에서 “연못에 봄풀이 돋아나오고, 정원버들 우는 새 바 귀었구나(池塘生春草, 園柳變鳴禽.)”란 천고의 명구를 남겼다. 봄이 되니 봄풀이 돋아나고, 버들개지에 물오르니 꾀꼬리의 목청이 변한다. 마치 밥 먹으니 배부르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이 무덤덤한 구절을 두고, 역대로 칭찬이 마르지 않았다. 송나라 葉夢得은 『石林詩話』에서 이 구절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이 기막힌 줄을 대부분 잘 알지 못한다. 대개 기이한 것만 가지고 구하려 들기 때문이다. 이 구절의 교묘한 점은 바로 아무 의도 없이 느닷없이 경물과 서로 만나, 이를 빌어 글을 이루고, 같고 다름을 겨룰조차 없었던 데 있다. 보통의 정으로는 능히 이를 수 있는 바가 아니다. 詩家의 묘치는 모름지기 이것을 가지고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괴롭게 끔끔 대고 어려운 것만 말하는 자들은 대체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했다.³⁷⁾

고봉의 시구인 ‘池塘春草晚萋萋 隱几閑吟日向西’는 謝靈運의 ‘池塘生春草,

34) 奇大升, 『高峰集』, 卷之一.

35) 謝靈運, 〈登池上樓〉, 潛虯媚幽姿 飛鴻嚮遠音//薄霄愧雲浮 棲川作淵沈//進德智所拙 退耕力不任//徇祿反窮海 臥病對空林//衾枕味節候 褰開暫窺臨//傾耳聆波瀾 舉目眺嶺嶽//初景革緒風 新陽改舊陰//池塘生春草 園柳變鳴禽//祁祁傷幽歌 萋萋感楚吟//索居易永久 離群難處心//持操豈獨古 無悶徵在今.

36) 金 元好問이 ‘池塘春草謝家春 萬古千秋五字新’이라 극찬한 이래, 가장 유명한 봄의 구절이 되어 대대로 회자되어 오고 있다.

37) 정민, 『한시미학산책』, 휴머니스트, 2010.

園柳變鳴禽'와 견주어 그 詩情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고봉의 '池塘春草晚萋萋 隱几閑吟日向西'는 3구에 억지가 없고, 시정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4구가 더할나위 없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謝靈運의 <登池上樓> '池塘生春草, 園柳變鳴禽'에 대한 평은 고봉의 <次李重之韻> '池塘春草晚萋萋 隱几閑吟日向西'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 4구는 그 표현의 기발함이 무척이나 돋보이는 구절이다. 표현이 기발하면서 곱고 아름답다는 점에서 '綺麗'의 품격이 풍겨진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억지가 없고, 시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흥이 최대한 절제되어 나타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마지막 2구에 와서 '聞道新亭開勝槩 擬携藜杖步苔磯'라고 情을 강조하여, 景과 균형을 맞추고 있다. 굳이 하나의 품격을 이야기하자면 고봉의 <次李重之韻>은 '自然'의 품격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고봉 시에 나타난 품격은 '綺麗', '典雅', '自然'이다. 16세기 호남 사림의 시문학 풍토에 영향을 받은 고봉이 가장 추구하였던 품격은 '綺麗'이다. 원기 시에 대한 평에서 알 수 있듯 고봉은 '綺麗'의 품격을 '시 다음'으로 인식하였다. 고봉은 작품 속에 기발하면서도 곱고 아름다운 표현을 쓰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고봉 시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선 표현의 아름다움을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봉은 또한 퇴계의 문학론에 영향을 받아 전이한 시를 쓰려고 노력하였다. 흥을 최대한 절제하고 담담한 필치로 눈앞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려 내려 하였다. 그러한 시도는 여러 작품을 생산해 냈으며, 그 작품들에게서 읽혀지는 품격은 '典雅'이다.

무엇보다도 고봉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품격은 '自然'이다. 흥의 발산과 절제, 주지와 주정의 조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시정의 전개 등 고봉 시 전반에서 폭 넓게 드러나는 품격은 '自然'이다. 또한 '自然'의 품격이 드러난 작품의 시적 아름다움이 탁월하다. 고봉 시의 품격에 대한 이해는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4. 結論

고봉의 시문학은 호남 사림의 詩作 풍토, 16세기에 촉발된 성정 미학 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고봉 자신이 16세기 호남 사림을 대표하는 일원이었으며, 그들의 시작 풍토를 만들어가는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고봉이 호남 사림의 시작 풍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의 문제이다.

또한 16세기에 일었던 성정론은 문학 창작에도 영향을 끼쳤다. 문학에 있어서 이러한 성정 미학론은 고봉 문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주기론이든 주리론이든 세상의 중심에 성정이 있고, 성정의 발화가 그 사람이라는 성정론은 16세기 한국사상사에 하나의 돌풍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성정론의 중심에 고봉이 있었다. 고봉에게 있어 문학 작품 역시 성정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동일한 논리로 그의 작품은 그 자신의 외화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고봉 문학의 내적 토대이다.

고봉 시에 나타난 품격은 ‘綺麗’, ‘典雅’, ‘自然’이다. 16세기 호남 사림의 시문학 풍토에 영향을 받은 고봉이 가장 추구하였던 품격은 ‘綺麗’이다. 원기 시에 대한 평에서 알 수 있듯 고봉은 ‘綺麗’의 품격을 ‘시 다음’으로 인식하였다. 고봉은 작품 속에 기발하면서도 곱고 아름다운 표현을 쓰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고봉 시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선 표현의 아름다움을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봉은 또한 퇴계의 문학론에 영향을 받아 전아한 시를 쓰려고 노력하였다. 흥을 최대한 절제하고 담담한 필치로 눈앞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려 내려 하였다. 그러한 시도는 여러 작품을 생산해 냈으며, 그 작품들에게서 읽혀지는 품격은 ‘典雅’이다.

무엇보다도 고봉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품격은 ‘自然’이다. 흥의 발산과 절제, 주지와 주정의 조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시정의 전개 등 고봉 시 전반에서 폭 넓게 드러나는 품격은 ‘自然’이다. 또한 ‘自然’의 품격이 드러난 작품의 시적 아름다움이 탁월하다. 고봉 시의 품격에 대한 이해는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

1. 資料

孔子, 論語 <雍也編>.

奇大升, 高峯集, 卷之一.

奇大升, 성백효, 이성우 譯, 국역 고봉전서,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7.

李珣, 栗谷先生全書 卷之 13.

李滉, 退溪集, <陶山十二曲 跋>.

2. 論著

권미화, 「高峰 文學觀의 性理學적 양상」, 『열상고전연구』 33, 열상고전연구회, 2011, 65~94쪽.

(DOI: 10.15859/yscs..33.201106.65)

_____, 「고봉 기대승 한시의 산수전원 의식 연구」, 『열상고전연구』 69, 열상고전연구회, 2019, 147쪽.

(DOI : 10.15859/yscs..69.201910.187)

김병국, 「고봉 기대승의 문학 연구」, 『泮橋語文研究』 30, 반교어문학회, 2011, 61~92쪽.

(UCI : G704-001785.2011..30.007)

김성기, 「고봉의 贈詩 연구」, 『전통과 현실』 10, 고봉학술원, 1999, 175~205쪽.

(UCI : G704-001677.2016..37.016)

김진옥, 「고봉시의 봄 의미 연구」, 『문화와 융합』 45(1),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17~28쪽.

박명희, 「高峯 奇大升 시에 나타난 興感의 미학적 특질」, 『호남문화연구』 54, 호남문화연구소, 2013, 179~210쪽.

(UCI : G704-001854.2013..54.004)

이병기, 「奇大升의 弔挽詩에 대하여」, 『전통과 현실』 7, 고봉학술원, 1996, 123~155쪽.

정민, 『한시미학산책』, 휴머니스트, 2010.

조정림, 「고봉 기대승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Abstract |

A Study on literary characteristics in Gobong's poetry

Kim Jin-wook
Chosun Univ. Prof.

Gobong's poetry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poetry writing culture of Honam Sarim and the discussion on sexual aesthetics that arose in the 16th century. Gobong himself was a representative member of the Honam Sarim community in the 16th century, and was at the center of the debate that created their starting climate. Because it was such a high peak, it could not be free from the influence of the starting climate of Honam Sarim.

In addition, the sexual theory that arose in the 16th century also influenced literary creation. In literature, Seongjeong Mihaglon had a great influence on Gobong literature. Whether it is Jugilon or Julilon, Seongjeong is at the center of the world, and Seongjeonglon, which means that Seongjeong's utterance is that person, was a sensation in the history of Korean thought in the 16th century. As you know, Gobong was at the center of Seongjeonglon. For Gobong, literary works also could not be free from Seongjeonglon, and by the same logic, his works could only be his own foreign versions. This is the inner foundation of Gobong literature.

The qualities that appear in Gobong poetry are 'Gilyeo', 'Jeon-a', and 'Jayeon'. The quality that Gobong most pursued, influenced by the poetic culture of Sarim in Honam in the 16th century, was 'Gilyeo'. As can be seen from the review of Wongi's poetry, Gobong recognized the quality of 'Gilyeo' as 'poetry.' Gobong tried to use ingenious, yet beautiful and beautiful expressions in his works. Therefore,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Gobong's poetry,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read the beauty of expression.

Gobong was also influenced by Toegye's literary theory and tried to write elegant poetry. It attempted to portray the nature in front of us as it is, with a calm brushstroke and moderation of excitement as much as possible. This work of Jeon-a Pumgyeog is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Gobong's poetry.

Above all, the quality that appears most prominently in Gobong poetry is 'Jayeon.' 'Jayeon' is the quality that is widely revealed throughout Gobong's poetry, including the release of excitement and restraint, the harmony of

knowledge and spirit, and the natural development of poetry as if flowing. Additionally, the poetic beauty of the work, which reveals the quality of 'Jayeon', is outstanding.

Understanding the quality of Gobong's poetry helps in understanding his works. For this reason, we discussed how Gobong's Pumgyeog Gilyeo, Jeon-a, and Jayeon were revealed in the work.

Key words : Gobong, Seongjeonglon, Pumgyeog, Gilyeo, Jeon-a, Jayeon.